

# 전주를 세계적인 관광거점도시로

전주시, 발전 방안 모색하는 전문가 포럼 가져  
오늘 서울서 글로벌 전략 추진방향 세미나 개최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를 서부내륙권 중심 관광도시이자 한국 지역관광거점도시로 육성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진 한국지역개발연구원 부원장은 22일 환경주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최영기 전주시 관광다움마당 위원장, 전주시 문화관광해설사 등 관광관련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린 '전주 관광발전 전문가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포럼은 전주시가 글로벌 관광 거점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적 도시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지역관광거점도시의 글로벌 전주관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서울진 부원장의 발제에 이어, 최영기 전주시 관광경영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심창섭 가천대 관광경영학과 교수와 류인평 전주대 국제교류원장, 금기형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장인식 우송정보대 호텔관광과 교수, 정명희 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등 5명의 토론자가 참여하는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서 부원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대한 국제관광도시와 관광객의 지방 확산을 위한 지역 관광거점도시를 육성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면서 "일정수준의 인프라와 매력도를 갖춘 도시를 지역관광거점도시로 선정해 지역관광의 허브로 육성하는 만큼 전략적 접근이 있던 역사적 중심 도시 전주, 가장 한국적인 도시 한 문화의 중심도시 전주가 지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전주는 서부 내륙권의 중심 관광도시로, 서울과 부산으로 연결되는 외국인 관광객 관광루트이자 전라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도시여서 주변 지역 연계 파급력이 매우 높은 도시"라며 "지역관광거점도시를 위해서는 세계 속의 전주, 전주 안의 세계를 위한 단계별 전략 마련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세계 속의 전주, 전주 안의 세계'를 위한 3단계 전략으로 △지역혁신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관광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관광 혁신도시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지역 관광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연계 관광 거점도시 △세계인이 찾아오는 국제적 관광목적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글로벌 관광도시를 제시했다.

세부 추진방안으로는 △글로벌 콘텐츠 구축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열린환경조성 △

공정적 도시관광 이미지 구축 방안 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류인평 전주대 국제교류원장과 장인식 우송정보대 교수 등 토론자들은 "전주시가 지속가능한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통한 글로벌 관광도시, 지역관광거점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목적지가 될 수 있도록 인바운드 관광의 지역거점도시화가 필요하다"면서 "DMO 구축, 외국인 열린 관광환경조성 등 전주관광의 미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관광거점도시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관광도시 아젠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는 이날 전문가 포럼에 이어 오늘은 서울 용산역 비즈니스 회의실에서 전주, 글로벌 관광도시를 위한 글로벌 전략 추진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관수 프로젝트 수 대표(한양대학교 겸임교수)가 "전주시의 글로벌 관광도시를 위한 글로벌 전략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정병용 한국관광협회(순천향대 교수)와 장병권 호원대 교수, 심창섭 가천대 교수 등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전주시 세계적인 관광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도시관광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주관광 발전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전주' 라는 도화지 위에 '청춘' 을 그린다

전주시, 오는 31일 객리단길서 플라마켓 · 문화공연 추진

아지자기한 카페와 맛집들이 들어서면서 상권이 되살아난 전주객리단길(객리단길) 도로에서 지역 청년들이 문화행사를 펼친다.

전주시는 오는 31일 오후 5시부터 3시간 동안 객리단길 190m구간(객사2길 47~객사2길 73)에서 객리단길 활성화를 위해 공연과 전시, 플라마켓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문화행사는 시가 청년공공체 '청춘그리다', 객리단길 지역발전협의회와 힘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크게 △전시 △무용공연 △버스킹 공연 △플라마켓 등 네 분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10여 개의 조소작품과 트리아트 작품이 거러에 전시되고, 길거리 무용공연과 한 여름밤의 버스킹 콘셉트의 공연도 펼쳐지게 된다.

또한 청년 셀러 20여개 팀이 참여해 체험 위주의 부스를 운영하는 플라마켓도 운영된다. 시는 플라마켓 운영 시 주변상인들과 겹치지 않는 품목으로 부스를 운영하고, 지역상가의 참여도 유도할 방침이다.

이날 행사를 위해 객사2길 일부구간이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교통이 통제된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이곳을 찾은 청년층 등 전주시민과 여행객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한옥마을 여행객과 시민들의 객리단길 유입을 유도해 거리가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행사주변 상가의 참여를 이끌어내 지역상생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



다보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전주 구도심 지역인 객사2길 5개 건물과 젠트리피케이션(동지내몰림) 방지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임대료 안정과 지역상권보호에 힘써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자발적인 해결을 위해 힘써왔다.

신계숙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은 "청년들이 스스로 문화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여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서로 같이 상생해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고, 오랜 기간 상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건물주와 임차인, 전주시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김제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청소년 도슨트 아카데미' 교육 시작... 전시 학습 · 현장교육 · 시연 촬영 등

김제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은 지역문화유산에 관심 있는 청소년 6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 '청소년 도슨트 아카데미' 교육을 시작했다. 도슨트는 전문적으로 훈련 받은 전시안내자를 말한다.

이번 교육은 8월부터 9월까지 총 8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과 농경사주제관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참여 학생들은 'Im 도슨트'라는 주제로 매주 일요일마다 2시간씩, 8주간 교육을 받는다. 교육과정은 박물관 · 주제관 전시 학습, 김제 벽골제와 오천년 농경문화 심화 강의, 도슨트 역량교육, 선배 도슨트와 만남, 현장교육, 도슨트 시연 촬영 및 토론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 14일과 18일에는 도슨트 역량 교육 및 농업혁명과 인류문화 발전에 대한 강의와 함께 선배 도슨트와 만남의 시간을 가졌으며 '선배 도슨트와 만남' 시간에서는 김제시 문화해설사 김지선, 이일순 두 분의 선생님이 참여하여 참가자들에게 전문경험과 지식을 제공하였다. 또한, 참가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도슨트에 대한 이야기를 경청하고 나누는 토론회도 가졌다.

앞으로 도슨트 교육 참여 청소년들은 아카데미과정을 통해 지역 문화유산 청소년 전문가로 성장하여 또래의 청소년들에게 멘토 역



김제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이 지역문화유산에 관심 있는 청소년 6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 '청소년 도슨트 아카데미' 교육을 시작했다.

할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9월 18일로 예정된 대안위 놀이학습프로그램인 '벽골제 대탐험' 교육에 참여해 150여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슨트 시연을 실시하고 실무경험도 쌓는다.

'청소년이 청소년에게 김제 역사·문화와

지역 문화유산을 알리고, 홍보한다'라는 취지로 기획된 이번 청소년 도슨트 아카데미는 향후 대상을 어린이로 확대해, 지역 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역 역사·문화와 지역문화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김제=곽노태 기자

## 전북문화콘진원, 찾아가는 창창한 콘서트x안물안궁 개최

전북도와 (재)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원장 최용석)은 오는 28일 오후 4시부터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 건지아트홀에서 '2019 찾아가는 창창한 콘서트 x 안물안궁'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콘텐츠에 트렌드를 입히다'라는 슬로건으로 '취존시대 : 나의 취향이 콘텐츠가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현재 콘텐츠산업의 트렌드에 대해 자유토론을 하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강연자로는 디자인회사 MA+CH의 대표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맹활약 중인 장성은 대표와 동인문화상, 이효서문화상, 이상문화상 등 국내 유명 문학상을 석권하고 KBS '대화의 희열' 등 다수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김중혁 작가가 나설 예정이다.

이 행사에는 김현욱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고, 유명 인디밴드인 안영바다의 특별공연으로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번 토크콘서트를 시작으로 전라북도콘텐츠포럼 토크콘서트 운영사업 '안물안궁'을 총 4회를 운영할 예정이며, 콘텐츠 산업 분야의 다양한 전문 강사를 초빙하고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도내 문화콘텐츠 생태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황철호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콘텐츠포럼 토크콘서트를 통해 문화콘텐츠와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도민들이 관심을 높여 콘텐츠 관련 취업과 창업이 활성화되고 전라북도 콘텐츠 인력양성과 산업 육성에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고민하여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2019 찾아가는 창창한 콘서트 x 안물안궁 토크콘서트는 관심이 있는 도민이라면 선착순 100명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와 (재)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성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